

이슈파워



수업 중 귀어축제 영상 뜯 교사 비난 학부모단체... “300만원 손해배상”

“동성에 조장한 적 없어...사실확인 않고 시위”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귀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비난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피켓 시위를 한 학부모단체에게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1일 최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이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씨는 2017년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귀어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

체인합(전학연)은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와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며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최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에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성파괴자 최씨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최씨는 전학연과 대표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6월 전학연과 이 대표가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은 “최씨가 학생들에게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다’는 말이나 남성을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자신이 다녀온 귀어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에도 이 같은 표현이 없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만 찍혀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파 동반’ 시베리아 고기압 오늘 미세먼지 밀어낸다

기상청 “10도 이상 하강가능성... ‘3한(寒)4미(微)’ 현실로”



12일 대기가 확산되고 국외의 미세먼지 유입이 한풀 꺾이면서 4일 만에 대기가 청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한파가 다시 몰아친다. 겨울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습하는 ‘3한(寒)4미(微)’의 기후 패턴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 기상당국은 동파예보와 체온유지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이날(12일) 한파 영향예보를 발표했다. ‘한파 영향 수준 분포’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은 ‘주의’ 단계, 충남 일부지역과 전북 내륙은 ‘주의’~‘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 일부에 다소간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추위에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뇌혈관 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육의 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역에 따라 기온이 전날 아침

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하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가 동파할 수 있어 보온이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까지 전국에서 한랭질환자가 47명 발생했으며, 12일 한랭질환 대응책 마련도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물러가자마자 한파가 밀려오는 까닭은 한랭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영향이다.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되면 서 우리 내륙에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먼지의 정체 가능성을 낮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여기에 강수와 강설이 동반될 경우 대기 중 존재하는 먼지를 세정하는 효과도 지닌다.

환경당국은 다만 “겨울철은 적은 강수량과 난방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파를 앞둔 한반도 내륙은 11

일 오후 1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가 각각 ‘매우 나쁨’~‘나쁨’으로 뿌연 대기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3 (세제곱미터)당 $64\mu g$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경기 $79\mu g$, 강원 $76\mu g$, 충북 $83\mu g$, 충남 $93\mu g$, 전북 $76\mu g$ 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서울 $106\mu g$, 경기 $120\mu g$, 세종과 충남이 각각 $148\mu g$, $141\mu g$ 을 기록, ‘나쁨’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부지역별로는 1시간 기준으로 전북 군산 $209\mu g$, 정읍 $190\mu g$, 충남 아산 $196\mu g$, 예산 $186\mu g$, 경기 용인 $190\mu g$, 이천 $172\mu g$, 강원 춘천 $173\mu g$, 경북 영주 $176\mu g$ 등 곳곳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제주도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81\sim 150\mu g/m^3$ 이면 ‘나쁨’, $151\mu g/m^3$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되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75\mu g/m^3$ 를 초과할 경우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뉴스1

80명 ‘광주시민 체납정리반’, 올해 56억 징수

지방재정 확충·시민 일자리 창출...내년도 운영



광주시민 체납정리반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광주시는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한 결과, 총 56억 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조세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납부안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액 징수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했다. 시비 지원을 통해 자치구에서 시민 80명을 채용하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흑서기를 제외한 약 5개월간 운영됐다.

체납정리반은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16만명에게 체납액 298억원에 대한 전화납부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체납자 6만 457명에게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했다.

또 세무공무원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449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8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정리반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둬 따라 내년도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안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엑상 전자담배서 폐질환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이르면 오늘 발표

대마 유래 성분인 THC는 검출 안돼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로 지목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Vitamin E acetate)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부터 진행해온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분석을 최근 마쳤다. 식약처 관계자

는 11일 “이르면 12~13일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이번에 식약처 분석이 완료됐다”며 “우려했던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된 제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식약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7종을 분석했다.

조사 제품에서 나머지 유해성분 6종 중 대마 유래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성분인 가황물질 디아세틸·아세트인·2,3-펜텐디온 그리고 액상 기화 용매인 프로필렌 글리콜·글리세린 등의 함유 여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건강한 청춘, 건강한 생활

우리 민척이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29 | | 고객센터 1577-1000 |